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27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27
2021.06.27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41201733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6.27

1. [차별이 잘못된 줄몰라서 할리가...]

2021년, 역병과 더불어 세상에 차별이 점점 만연하고 있다. BLM 운동 이후 대중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저항은 점점 발전하는 듯하면서도 이에 못지 않게 전세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도 차별의 합리화와 노골화도 심해지고 있다. 혹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이 공론화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언하기에는 최근 개인매체 및 커뮤니티에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차별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 현상까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차별 옹호적인 사회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한국 국회는 물론 많은 국가의 의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우리 < 아나키스트 연대 >는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소수자들의 자주적인 저항과 투쟁을 지지하며 이들과 연대하고자 한다. 때문에 이런 소수자들이 당장의 해결책으로서 차별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면 우리는 이해결책에 의문을 품더라도 함부로 반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이해결책, 차별금지법에 명확한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의 세부적인 조항도 따지고 들면 지극히 합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걸 개정한다고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기에 차별금지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단 차별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보자. 보통 차별이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상대방에 대한 물이해는 차별이라는 폭탄에 있어서 심지 부분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터지게 되는 화약 부분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해관계, 그리고 물질적 토대의 불안정성이다. 먼저 이해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차별도 상당량은 실제로 물질적 손익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인매체들의 차별을 조장하면서 인기를 얻는 사례가 있다.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이해관계는 자본주의 및 국가 체제가 직접적으로 조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관련 사업을 배불리는 대신 수많은 소수자들을 불행에 빠뜨린다.

그러나 차별 중에는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론 및 개인매체들의 이해관계적 기반이 되는 대중의 소수에 대한 차별은 물질적인 손익과 거의 무관하다. 그러면 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인가? 바로 물질적 토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한번쯤 임금체불, 실직위기, 갑작스런 해고 등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갑자기 자신의 임금 등의 물질적 토대가 흔들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똑똑하든 간에 자신의 비극의 원인을 자신이나 체제보다는 체제가 합리화하는 대로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한다. 그렇게 대중은 소수에 대해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은 이렇게 발생하기에 이를 차별금지법 등의 제도를 통해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면에서범법자에게제제를가하거나소수의경우구속하는방식
이기에이해관계를기반으로하는차별, 예를들어개인매체나언론의차별
조장적보도정도는제한할수있어도물질적도대의불안에의한차별은막
기힘들다. 아니, 오히려불안에내몰린대중을더더욱압박하기에그들은
'표현의자유'등을내세우면서차별정당화에더더욱힘을쓸것이다. 이렇
게더더욱열내는대중을본기존의이해관계적차별자들은이열기를사업
삼아법의제제를감안하고도차별을더욱은밀하게조장하면서수익을내
려할것이다.

그러면우리는어떻게저항해야할것인가? 운이 좋게물질적기반에불
안을안느끼거나이를극복한우리는이런대중에게'과연우리가느끼는불
안의원인이차별하고자하는대상인가?'라는질문을꾸준히던져줘
야한다. 그리고그들이체제의차별에대한합리화를눈치챌것같으면그들
을도와차별의거짓에대해깨닫도록도와줘야한다. 대중은흔히어리석다
고들볼세비키, 의회주의자, 계몽주의자들은말하지만그들은절대그렇
지않으며약간이라도합리화에대해의문을품기시작하면저절로거짓에
대해깨달을수있다.

나머지이해관계적으로형성된차별주의자들은어찌하는가? 이해관
계에충실한자들은이해관계에맞춰서대응하면된다. 그들의차별과선동
을폭로하고이들의부정에맞서불매운동등으로조직적투쟁을실시하면
된다. 그러면그들은저절로살아남기위해그러한차별적인행동을멈추거
나역으로물질적으로유지하지못하면서붕괴될것이다. 결국차별에대해
맞설때도필요한것은대중의조직화된투쟁이다. 우리대중은성별이어떻
든, 인종이어떻든, 신체상황이어떻든간에서로협력하며살아가는존재
이다. 우리중하나의상처는우리모두의상처이니, 인민대중이며, 단결하
여나아가자!

” 외국인이라, 사투리쓴다고...” 정당한차별이란없다” 피해자들호
소” :

<https://youtu.be/5P4XD8EIQOU>

2. [중국공산당망해라]

비단아래기사에나오는홍콩에서의일만가지고하는이야기는아니
다. 중국공산당이중국내당시어나키스트들의뒤통수를후려갈기고출범
한이래 100 년이라는시간이흐르는동안그들이쌓아온죄악을헤아릴수
없는지경에이르렀다. 아주가까운시일의사례로는홍콩의언론들을강제
로폐간시킨것부터시작해홍콩인민들의자유를억압하는악법을만든것,
노동자들이자신의목소리를내고자만든민주노조를탄압하고박살내고
활동가들을잡아다가두고두들겨패서내다버린것, 조금멀리가보자면국
제행사를위해자국민들의삶의터전을국가의이름으로부수고철거한
것, 공산당이라는이름을걸고제국주의적인경제식민지정책을끊임없이

획책하는것등, 이루어져하기가불가능할정도다. 천안문사태는굳이적지않아도스스로부끄러움을아는것인지황금방패전사님들이열과성을다해자국내에서접근하기어렵게하고있으니굳이덧붙이지않아도좋은것이다.

여기에비판적인목소리를낼일군의독자들에게도분명히묻고싶다. 중국공산당이여러분마음속의그공산당이맞기는한가? 자국의이익만을쫓아민족주의적광기를전세계에내뿜으며갈춤추는모습이정말노동자대중을위한'공산당'의모습이맞는가? 물론우리강철의대원수스탈린도그랬으며특수한상황이어찌고자본주의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노동자국가를수호운운하는대답들이돌아올것을너무나도잘알지만, 그러면굳이더첨언할것은없을것같다. 다만쓴웃음이지워지지않는착잡함만이남을뿐이다.

이제는차라리중국이사회주의의연하는것을그만멈추고솔직하기라도했으면어떨까싶다. 자본주의는자본주의대로받아들이고, 민족주의는민족주의대로광풍을일으키고, 제국주의는제국주의대로밀어붙이는것이어디를봐서사회주의라는말인가. 차라리사회주의의간판을떼고스스로에게솔직하기라도하면안먹어도될육은적어도피할수있지않겠는가.

인간사백년이면경허히죽음을받아들일때도된것이다. 백년동안중국공산당이무얼얼마나이루었고노동자대중을위해노력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 뭐, 했다고치고, 이제그만역사의뒤안길로사라져주셨으면하는간절한바람이다. 그뒤는중국각지의여러대중들, 티베트의여러대중들, 위구르의여러대중들, 홍콩의여러대중들, 대만의여러대중들이알아서스스로의삶을잘꾸려나갈것이다. 아무리중국공산당이파쇼적인행태로대중들의투쟁을짓밟아도끝내다시일어서는것과마찬가지로말이다. 이제그만망해라.

” 홍콩의‘분서갱유’ ”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1034.html>

” 시진핑, 공산당창당 100 주년앞두고' 새로운업적' 주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7028300083?>

input=1195m

3. [그들의민낯]

지난 18 일, 함안의제조업체에서채용된직원에대해‘충성서약’을강요하고있던관행이금속노조경남지부에의해밝혀졌다. 내용은지시에대한무조건적복종, 전근·전입·출입·기타에관한사측명령에대한순종과수습기간중사퇴권고시즉각사퇴, 자신이나회사의타직원의연봉및시급에대한정보누설금지등가히전근대적인수준이다.

오늘날한국자본주의가밖으로는몇몇대자본이무노조경영구조를내리는등자신의겉모습을좀더세련되게포장해보이려하지만안으로는여

전히이러야만적관행을가지고있는것이일반적인현실이다. 주류기득권언론의관심과시선에서벗어난지방, 비정규직, 계약직노동자들은여전히자신의최소한의권리도보장받지못한채착취당하고있고그나마이미지를챙긴다는기업들조차노조파괴와 UHP 를위시한최대한의육체착취를일삼는다. 노동자들은이러한국가본주의의민낯을직시하고상생을운운하는정부와우파의선전선동이얼마나가식적인가를직시해야한다.

21 일자로해당업체의대표는이복중서약서에대해사과하며근절하겠다고말한상태다. 정말착취적관행을폐지할수있을지없을지는앞으로도직접투쟁하는노동자의손에달려있다.

” 함안제조업체, 노동자에‘복중서약’논란”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3821>

4. [아, 이게좌우넙나들기였구나...]

우리준석이형이국민의힘당대표가된이래로붕하마을을찾아황교안을만났고, 이승만과대립한백범김구묘소도참배했답시고좌우넙나들기했다는말들이나오고있다. 20 대청년을대변하는공정한사회를만들어줄당대표, 준석이형! 정말대단하지않은가?

일단가장먼저, 김구와노무현묘지를찾았답시고' 좌' 에도손을내밀었다고판단하는언론들의판단이참여접기그지없고, 동시에' 중간지대 넓히기' 라는이름조차도너무역겹다. 이준석이이야기하는소위' 공정' 진짜공정이맞는지조차도신뢰성이드는데, 이준석을떠워주고자하는수많은시도들이많이보이는것또한너무나도역겹다.

좌우를넙나들며중간지대를넓힌다고? 틀렸다. 이준석은자신이안티페미니즘과 20 대남성청년을대변한다는것을넘어, ' 평범한' 대한민국의정치인이되고싶다는것을행동으로써보여주고있을뿐이다. 그이상이하도아니다.

이준석신드롬에, 그리고연례행사같은좌우통합코스프레에더이상속지말자. 그어떤사람보다도 18~19 세기영국을간곡히원하고있는이준석을그냥저만발치에치워두자.

그리고우리가일하고있는곳에, 우리가살아가고있는곳에집중해보자. 그리고불만이있거나무언가더나아지게만들기위해, 내옆에있는친구와함께같이싸워보자. 이준석에게기대는것보다, 그것이진짜로내삶을바꾸는힘이될것이다.

” 이준석, 좌우넙나들며‘중간지대넓히기’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